

농산물값 고공행진... 지역 장바구니 물가 '비상'

호남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 동향 광주·전남 소비자지수 상승세 여전 사과·양배추·배추가격 큰 폭 상승

농산물 가격 폭등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지역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소비자물가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농산물은 연초 사과·배·대파에 이어 4월 들어선 양배추와 배추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2021년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1(2020년=100)로 전월보다 0.2%, 전년동월대비 3.3% 올랐다.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준연도는 '2020년=100'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02.57(+2.6%), 2022년 107.79(+5.1%), 2023년 111.76(+3.7%) 등으로, 매년 상승한 가운데 2022년에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전남지역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99로 전월보다 0.1%,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전남 소비자물가지수는 2021년 102.62(+2.6%), 2022년 108.43(+5.7%), 2023년 112.20(+3.5%)으로 연속 오른 가운데 광주와 같이 2022년에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의 4월 품목 성질별 소비

자 물가는 농수축산물 상승세가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 광주는 전년동월대비 10.8%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동월대비 가장 크게 오른 품목은 사과(94.0), 양배추(54.8), 배추(24.1), 깻잎(33.1), 오이(18.4), 당근(13.7), 토마토(13.2), 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어(15.6), 닭고기(17.2), 수입쇠고기(11.1) 등 일부 수산물과 축산물 가격은 내렸다. 전남 농수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3%, 전년동월대비 10.7% 상승

했다. 특히 신선식품 지수는 전년동월보다 15.6% 올라 장바구니 물가 상승세를 실감케 했다. 지난해 동월대비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품목은 사과(91.8), 배(83.6), 양배추(53.2), 배추(31.6), 당근(26.8), 토마토(20.9), 호박(20.8) 순 등으로 가파르게 올랐다.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해 동월대비 각각 3.6%, 4.0% 올랐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신세계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골드키즈 페어'를 선보인다. 사진은 프리미엄 아동복 브랜드 '봉통' 매장의 모습.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 어린이날 '골드키즈 페어' 진행

광주신세계는 오는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골드키즈 페어'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으로 한 자녀만 둔 가정의 늘어나면서 귀하게 자라는 외동아이를 뜻하는 신조어 '골드키즈'가 확산,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골드키즈 페어 행사는 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되며 참여 브랜드는 슈슈앤씨씨, 미니도우, 갱키즈, 헤지스키즈, 미피키즈, 무나무, 오르시떼, 인플렛 데코 등이다. 미니도우는 10만원 이상 구매고객 중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토끼 러플백을 증정한다. 갱 키즈는 티셔츠, 반바지 등을 1만원대에 선보이는 등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한

다. 헤지스키즈는 오는 6일까지 신상품 10% 할인과 15만원 이상 우산을 증정한다. 본관 6층의 '스토케 (STOKKE)'는 익스플로리 액스 구매고객들에게 체인징백과 컵홀더 등 약 4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소진시까지 증정한다. 같은 층에 자리한 '봉통(BONTON)'은 30만원 이상 구매고객들에게 봉통 멀티백을 선착순 증정한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내 아이에게는 최고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하는 트렌드 확산으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며 "광주신세계는 스토케, 봉통 등 소중한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특별한 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은행, 퇴직연금 IRP 수익률 은행권 1위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상품 라인업 확대 투자기회 제공
광주은행이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 은행권 1위를 차지했다. 광주은행은 올해 1분기말 기준 퇴직연금 IRP(개인형퇴직연금)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운용 수익률(최근 1년간)이 연 17.58%로 은행권 1위, 전체 42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보험사 포함) 중 2

위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해에도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 비교에서 2분기와 3분기에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1위, 4분기에는 은행권 1위를 각각 달성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올해 1분기말 기준 IRP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최근 1년간)은 17.58%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권 평균인 13.42% 대비 4.16%

p 높은 수익률로, 광주은행의 탁월한 퇴직연금 상품 운용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퇴직연금 수수료를 5%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광주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북미기술연구소,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북미 리뷰뉴스 주관...2년 연속
금호타이어가 북미 리뷰뉴스(Rubber News)에서 선정한 '2024년 일하기 좋은 기업(2024 Best Place to Work)'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일하기 좋은 기업' 조사는 인적 자원 관리 기관인 '워크포스 리소스 그룹(Workforce Resource Group)'을 통해 북미(미국&캐나다)에 위치한 고무 생산 및 가공 등 관련 업체(15명 이상의 근

로자 보유) 약 1000여개 기업 중 9개의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평가는 참여 기업의 직장 내 문화와 정책, 관행 등 환경적인 요소와 직원 개개인이 기업의 측면에서 직접 느낀 경험 및 태도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어 자격을 갖춘 조직을 뽑는다. 해당 조사를 주관한 리뷰뉴스는 타이어 포함한 전체 고무 산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업계 언론 매체인 유러피언 고무 저널(European Rubber Journal), 플라스

틱 뉴스(Plastics News), 타이어비즈니스(Tire Business)와 함께 북미 고무 산업 내 이슈를 다루는 유력 언론 매체다. '일하기 좋은 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된 금호타이어의 북미기술연구소 'KATC(Kumho America Technical Center)'는 1990년 미국 오하이오주 엑스톤에 설립됐으며, 미국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시장동향과 신기술에 대한 정보 입수 및 분석을 통해 북미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타이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인천공항서 '갤럭시 S24 시리즈' 무료 대여

삼성전자가 여행지에서 더 유용한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rch)', '통역' 등 '갤럭시 AI' 경험 확대를 위해, '갤럭시 S24 시리즈' 무료 대여 서비스를 오는 6월 9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진행한다. 대여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14세 이상 누구나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선착순 한정 수량

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모두투어 홈페이지의 이벤트 메뉴(<https://bit.ly/3Qo28BJ>)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대여 제품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픽업데스크와 제2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갤럭시 스튜디오의 경우 잔여 수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즉석 대여도 해준

다. 제2여객터미널 갤럭시 스튜디오에는 '갤럭시 AI' 체험 공간도 마련됐다. 방문객들은 △통역 △생성형 편집 △노트 어시스트 △브라우징 어시스트 △셔클 투 서치 등 1020세대가 여행지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방문객 중 '삼성월렛'에 모바일 탑승권을 등록한 고객에게는 커피 쿠폰도 선착순으로 제공된다. **최권범 기자**

재테크 칼럼

어둠 짙은 부동산 시장, 바닥은 멀었다.

부동산 시장이 바다이라는 낙관론과 아직은 이르다는 비관론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적으로 상승하면서 낙관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더해가는 듯도 보인다. 전세가 상승은 흔히 주택가격 상승의 전조 신호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아파트 전세가 상승하는 이유를 더 세분해서 보아야 무작정 전세가 상승한다고 해서 뒤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전세가 상승은 전세 시장의 한 축을 맡고 있던 빌라시장이 여러 건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무너지면서 아파트로 전세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수요자들의 심리도 때를 기다리는 쪽으로 쏠리면서 아파트 매수를 선택하지 않고 있다. 되레 날마다 쌓여가는 엄청난 아파트 매물량에 비해 거래량이 미미한 것은 아직 바닥이 멀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상승장이 시작 됐다면 전세가 상승과 동시에 거

래량이 동반 상승 해야 한다. 전세가가 상승해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던 예도 많았다. 가까운 사례만 보더라도 2009~2014년 전세가가 20%정도 상승했으나 반대로 아파트 가격은 30%이상 하락했다. 주택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은 바닥을 이야기하기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난제를 안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무려 134조원에 달하는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버렸다. 부동산 PF 관련 대출은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고금리 문제만 해도 미국의 꺼질 줄 모르는 경기 호황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OECD 최고의 개인부채 국가라는 반갑지 않은 타이틀을 수년째 안고 있는 한국도 더 이상 은행 대출을 풀어서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힘든 상황

이다. 효과는 불투명하지만 국가의 예산으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시행해서 간접적인 부동산 시장 띄우기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비교적 건전한 정부부채가 현 정부 들어와서 국민총생산의 50%를 넘어서면서 위험수위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개인과 정부 모두가 위험한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는 위험하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한국의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비은행권)이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이런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동산의 봄은 아직 먼 것 같다.